

윤활유 업계 동향

SK (주)

신일본석유와 전략적 제휴

SK주식회사(대표 신현철, www.skcorp.com)가 일본 최대 석유기업인 신일본석유[新日本石油, 대표 西尾進路(니시오 신지)]와 사업 전반에 걸친 제휴관계를 수립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신일본석유도 같은 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동시에 발표했다.

SK(주) 신현철 사장은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는 석유산업에 있어서 양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성장일로를 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업전개를 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기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업제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적이 다른 석유기업이 사업 전반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사업제휴 분야는 ▲해외자원개발, ▲수급, ▲석유화학, ▲윤활유, ▲해외사업 등 주요 5개 분야로, 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에너지사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비용 절감, 사업의 효율화, 신규사업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자원개발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매입 등 안전에 대해 공

동사업화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기술교류회 운영 등 상시적인 평가분석 및 정보교환 체제 구축

2) 수급

석유수요 감소 상황에서 최적 공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교환, 대여 및 출하설비와 수송수단의 상호이용 및 공동이용 추진. 정유공장 정기보수시 제품 및 반제품의 상호 대여 추진

3) 석유화학

아시아지역에서의 압도적인 경쟁력 확립을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교환 및 대여, 제조/출하설비 및 수송수단의 상호이용 및 공동이용 추진. 생산설비 공동건설 가능 여부 검토 추진

4) 윤활유

수요증가가 현저한 해외 윤활유사업의 확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윤활기유의 교환 및 대여, 윤활유 블렌드 설비의 상호이용 및 공동이용 추진

5) 해외사업

아시아지역에서 생산설비의 공동건설을 포함하여 석유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사업화 검토

6) 기타

수송/정제/연구개발 각 분야에서 Cost 축소 및 효율화, 신규사업 기회의 창출 검토

양사의 사업제휴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고,

윤활유 업계 동향

계약에 있어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사는 사업체휴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로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본체휴에도 합의했다. 각사 전체주식의 1% 안쪽에서 매입하기로 해 SK(주)는 신일본석유 주식 1,432만주를, 신일본석유는 SK(주) 주식 129만주를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방법은 장내매수이며, 양사가 매입할 금액은 각각 900억원 정도이다.

SK(주) 관계자는 “양사는 각 분야에 있어서 사업체휴 정책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며, 미래를 향한 굳건한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신일본석유

신일본석유는 1888년 설립된 일본 최대 정유사로, 석유제품 정제/가스 수입 판매, 전력 발전 등 전반적인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523억 달러의 매출과 14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본 전국에 7개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정제량은 122만 배럴로, 일 정제량을 기준으로 석유기업 규모를 파악할 때 아·태지역 3위다.(SK는 SK인천정유와 합쳐 판단할 때 111만5,000배럴로 4위) 2005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 지분원유 매장량이 8억3,600만 배럴에 달해, 아시아시장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기업이기도 하다.

GS칼텍스 (주)

세계최대규모의 감압증류탑 설치

12월 19일, GS칼텍스 HOU건설 현장에 세계 최대규모의 감압증류탑(VDU Column)이 우뚝 솟았다. 높이 65.53m, 직경 15.24m에 무게만도 1,351톤이다.

현대중공업의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이 감압증류탑은 바지선으로 해상운반된 뒤 건설현장 인근 하역장에서 트레일러로 건설현장으로 들어왔다.

이때 사용된 트레일러는 길이 58M, 폭 6.8M로 무선으로 조종된다. 직경이 15m 이상이 되어 트레일러도 2대가 사용되었다. 한 대당 총 36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며 한 축당 4개의 바퀴가 사용되니 바퀴만 총 288개.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동도 이동이지만 세우는 것도 문제.

국내에서 이 같은 대용량의 탑을 세우는 경험이 전무했던 이유로 이번 작업을 위해 국내의 천조건설, 이탈리아 Fagioli PSC사, 그리고 GS건설 토목기술사업부 박사급 연구진들이 두

달여의 검토 작업을 거치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탑을 세우기 위해 최대 인양 능력 1,800톤 규모의 Tower lift System과 750톤 규모 Tailing Crane이 동원되었으며 탑이 안정적으로 세워지는데만도 8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특히 이 탑을 지지할 기초 구조물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16m, 높이 24.65m 규모로, 제작을 위해 고강도 철근 700톤, 콘크리트 2,500 m³(40kg포장 15만개) 등 엄청난 양의 자재가 사용됐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건립기간 중 연 6천명의 작업인원이 대거 투입됐다.

한편, No.2HOU 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1공구 3블록의 약 13만평 부지에 총 1조5천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하루 15만배럴 규모 VDU를 비롯, 하루 5만5천배럴 규모HCR(수첨탈황 분해 공정시설), 하루 1만7천배럴 규모 LOP(윤활기유 생산공정시설), 하루 300톤 SRU(황 회수공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GS칼텍스 HOU Project 부문장인 김형순 상무는 “현재 추진중인 No.2 HOU시설은 경질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값싼 중질유를 원료로 등유, 경유 등 고부가가치의 경질유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며 “내년 말 상업 가동을 목표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셀석유 (주)

동부화재 프로미월드 지정 오일사 선정

New 코레나 S&AS 고성능 압축기유 2종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되어 새로 출시하는 ‘코레나 S&AS’ 2종은 기존의 ‘코레나 P&AP’ 제품과 함께 회전형 압축기와 왕복동형 압축기 효용을 극대화 시켜주는 제품으로서 압축기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코레나 S&AS 윤활유는 ▶ 압축기 효율 유지를 위한 열에 대한 높은 안정성 ▶ 윤활유가 물에 오염되었을 때에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우수한 수 분리 기능 ▶ 오일의 수명 연장을 위한 우수한 산화 안정성 ▶ 압축기 부품의 수명 연장을 위한 향상된 마모방지 성능 ▶ 향상된 방기성 및 소포성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누유 감소를 위한 씰의 수명 증가, 저온에서의 원활한 압축기 사용을 위한 우수한 저온유동성, 부품 수명을 연장해주는 우수한 부식방지성능 그리고 뛰어난 가수분해 안정성 등 기존 코레나 제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산업 현장과 기업에서 압축기 윤활에 셀 코레나 오일을 사용하고 있으

윤활유 업계 동향

며, 아틀라스콥코(Atlas Copco), 한신 (Hanshin), 히타치(Hitachi), 잉거솔랜드 (Ingersoll Rand), 케이저(Kaeser) 등 많은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장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제품 소개]

* 압축기용 셸 윤활유

§셸 코리나 S: 까다로운 환경하에서 운전되는 회전형 공기압축기유. 특수 첨가제 및 기유로 제조된 프리미엄 윤활유 제품.

§셸 코리나 AS: 고온 다습한 악조건 하에서 운전되는 회전형 공기압축기유. 합성유로 제조된 최고급 제품.

§셸 코레나 P: 까다로운 환경하에서 운전되는 왕복동형 공기압축기유.

§셸 코레나 AP: 고온 다습한 악조건 하에서 운전되는 왕복동형 공기압축기유. 합성유로 제조된 최고급 제품.

포스코 2007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

한국셀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하종환, 이하 ‘한국셀’)는 포스코 2007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중국 법인을 포함한 13개 포스코 그룹사 차원의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포스코 우수 파트너사는 포스코가 공급사 성과 분석 시스템인 PCP (Posco Certified Partner)제도를 통해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업체를 포스코의 인증 파트너로 선정, 육성하는 제도다. 2년 연속 성과가 우수한 공급사를 대상으로 PCP인증서를 부여하며 선정된 업체는 1년간 PCP인증 공급사로서 우선 협상권, 각종 보증금 납부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국셀은 윤활유 공급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보여 PCP인증사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선정으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파트너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한국셀 하종환 사장은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 포스코 PCP제도

포스코 PCP제도는 납품실적, 신용도, 협조도 등 종합 성과분석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공급사를 포스코의 인증 파트너로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사를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전문품종 공급사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셀은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인 로열더치 셸 (Royal Dutch Shell)의 일원이다. 지난 1960년 설립되어 현재 자동차용, 산업유용, 선박용 운활유 등 다양한 운활유 및 그리스 제품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다. 투명 경영과 지속적인 사회투자 사업을 실천하여 2002년과 2003년 2년 연속으로 경실련이 선정하는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토탈이수오일 (주)

ISO 14001 인증 획득

토탈이수오일(주)의 니콜라스 웰만 사장(오른쪽)이 SGS인증원의 피터 포세미어 사장으로 부터 ISO 14001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ISO 14001 인증 수여식

토탈이수오일(주) (대표이사: 니콜라스 웰만)은 2006년 11월 27일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인증을 획득하고 12월 13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SGS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ISO 14001 규격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이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니콜라스 웰만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제시장에서의 환경경영에 대한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직원들의 환경의식 함양과 더불어 환경성과와 환경상태 개선을 통한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감소 및 관리체계 운영으로 고객만족의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범우화학공업 (주)

축!!! 「 대한민국 LOHAS 인증 」 획득

범우연합의 벅스인터코퍼레이션(이하 벅스)이 2006년 12월 21일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LOHAS 인증 수여식"에서

윤활유 업계 동향

"식품전용 살균세척제" 부문에서 동종 업계 최초의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인증"은

- ◎ 세계적 추세인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의 가치 혁신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고,
- ◎ 유해사용물질제한 등 선진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으로,
- ◎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적이며, 사회공헌적 상품의 확산 보급을 위해 한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인증 입니다.

백스는 금번 LOHAS인증 획득을 계기로, 친환경 식품전용 살균세척제인 GC-100X Series의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백스의 임직원들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경영이념의 실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삼성정유(주), 대표이사 변경

오는 2007년 1월4일부로 삼성정유(주) 최훈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이사	최천행	최훈

(주)지코스, 대표이사 변경

오는 2007년 2월16일부로 (주)지코스 박일규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이사	박기흥	박일규

(주)한국발보린, 대표이사 변경

오는 2007년 3월2일부로 (주)한국발보린 김민철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이사	신원범	김민철